

“전남 농산물 ‘地產地消 시스템’ 구축을”

(지산지소=전남 생산 전남 소비)

■ 전남발전연구원 장덕기 연구위원 주장

유통 단순화로 생산자·소비자 상생 도모

전남지역 농산물의 소비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생산물을 그 지역에서 소비 및 수출을 할 수 있는 지산지소(地產地消)형 생산·소비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전남발전연구원 장덕기 연구위원은 연구원 부정부패 척결 캠페인 ‘리전인포’ 최근호에 실은 ‘지역농산물 소비활성화 모색을 위한 연구’를 통해 “유통구조를 단순화시켜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장점으로 제시될 수 있는 ‘지산지소’ 운동을 벌여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 그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그 지역에서 소비하고 이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지속적으로 연결시켜 지역 농업과 관련된 산업의 활성화도 도모하는 취지에서 시작했다.

장 연구위원은 “일본은 지산지소를 통해 지역농업을 활성화시켜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최근에는 교육·교류·복지 등의 분야로 영역이 넓혀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도 높아 이를 전남 농정에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도내 식량자급률을 파악해 지역에서 자급할 수 없는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유도하고 단계적으로 도내 식량자급률을 높여 ‘전남생산 전남소비’의 극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산지과 소비지 직매장 운영 ▲농산물 가공을 통한 식품산업 육성 ▲학교급식 메뉴 개발 보급 ▲광주·전남지역 회사·관광사·식당의 도내 농산물 소비를 유도 ▲조례 제정을 통한 전남 농산물 소비확대 등을 제시했다.

장 연구위원은 “농업과 식품, 관광, 학교급식 등이 하나가 돼 ‘전남생산 전남소비’ 모델타운을 조성, 지산지소 운동의 성공적인 모델을 개발해 보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지역농산물을 지역에서 우선 소비해 농업활성화를 이루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전남쌀 가공공장에 대선제분 함평공장 지정

오는 10월 가을을 앞두고 있는 대선제분㈜ 함평공장이 ‘전남쌀 가공공장’으로 지정됐다.
전남도는 28일 전남도청 정약용실에서 박준영 도지사와 박관희 대선제분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쌀 가공공장 지정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대선제분㈜는 전남에서 생산된 쌀을 원료로 쌀 가공식품을 생산, 개발하고 관련 업체들과의 기술지원 등에 관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
대선제분은 1단계로 함평군 학교면에 292억원을 투자해 연간 2만4천t의 쌀·콩을 하루 80t까지

제분할 수 있는 최첨단 생산라인 3개를 갖출 예정이다.
또 2단계로 158억원을 투자해 무균포장 떡 등을 생산하게 된다.
전남도는 이 공장에서 도내에서 생산된 5천여t의 원료곡물을 취급, 연간 500억원의 농가소득을 기대하고 있다.
도는 이번 협약으로 정부가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중인 가공식품 확대, 가공식품 R&D 사업 등 향후 정부지원 식품사업 추진에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군민 숙원’ 담양 종합실내체육관 준공

담양군의 오랜 숙원사업인 종합실내체육관이 담양읍 향교리에 준공됐다. (사진)
공사비 170억원이 투입된 종합실내체육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1천846석(고정석 1천448석, 수납석 388석)의 관람석을 갖추고 있다.
농구와 핸드볼, 배구, 족구, 배드민턴 등 실내체육 경기장과 함께 각종 공연을 할 수 있는 야외무대 공연장 시설도 갖추고 있어 군민들의 생활체육 저변확대는 물론 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천연기념물 제366호로 지정된 관방제림과 대나무 테마파크의 죽녹원 등 주변의 관광명소와 연계돼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담양군은 앞으로 종합실내체육관을 동계 전지훈련 및 프로 스포츠 전담 훈련장 등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스포츠마케팅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담양=정필수기자 bungy@

전남도 ‘국제 농업박람회’ 준비 분주

용역 보고회 등 국제 행사 승인 절차 착수

오는 2011년 ‘국제 농업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전남도가 정부로부터 국제행사 개최 승인을 받기 위한 사전 준비에 나섰다.
전남도는 29일 도청 정약용실에서 행정부지사 주재로 ‘2011 국제 농업박람회 기본계획에 대한 중간 용역 보고회’를 갖는다.
‘국제 농업박람회’는 전남도가 매년 가을에 개최하고 있는 ‘대한민국 농업박람회’를 확대한 것으로 지난 7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동시대 산학협력단과 교류협약을 맺었으며 분야별 TF팀도 구성했다.

‘국제 농업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국제 연구기관과 주무부처, 기획재정부의 심사과정을 거쳐 정부의 국제 행사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전남도는 정부의 국제행사 간소화 지침에 대비해 효율적인 시설 배치와 활용계획, 전남만의 특화된 콘셉트를 찾아 정부 승인을 받기로 했다.
전남도는 중간 용역보고서가 차별화된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점검해 최종 기본계획을 세우고 10월에 국제 연구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내년 2월 말까지는 농촌진흥청과 농수산식품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2011년 10월 한 달간 개최 예정인 ‘국제 농업박람회’는 450억원을 투자해 국내외 관람객 150만명을 유치하고 1천334억원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송기희기자 song@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시영아파트 인근 나대지에 코스모스가 활짝 피었다. 시영아파트 나대지는 지난해까지 불법경작지로 방치돼 있었으나 광산구가 소유자인 한국토지공사 의 무상 사용 승인을 받아 예쁜 꽃밭으로 탈바꿈시켰다. /광산=기원태기자 wrkee@

가을이 오는 길목

나주시 무차별 주·정차 단속 반발

중심가 7곳 CCTV 설치 3주만에 550여건 적발 상인들 “생존권 위협” 시정 항의 방문 등 반발

나주시가 시내 중심도로에 CCTV를 설치해 무차별적인 주차위반 단속을 벌여 인근 상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나주시는 도심 교통난이 가중되자 지난 1일부터 CCTV를 설치해 불법 주차 차량 단속에 나섰다.
CCTV는 광주은행을 앞을 비롯해 금성관, 버스타미널 구간 등 주요 중심도로 5개소에 7대가 설치됐으며 단속 3주일만에 무려 550여건이 적발됐다.
이 때문에 CCTV가 설치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지역 주민과 외지인들이 단속의 표적이 됐다 는 지적이 일고 있다.
나주시의 이 같은 집중 단속에 대해 지난 21일 시내 중심상가 상인 50여명이 “무차별적인 단속으로 생존권이 위협 받고 있다”며 시청을 항의 방문하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상인 K모(45·나주시 중앙동)씨는 “CCTV를 설치해 주·정차를 단속하는 처사는 적발 위주의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그렇지

않아도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근 광산구의 경우 차량 통행량이 많은 첨단지역 중심도로에 CCTV를 설치했으나 단속 전에 경고 방송을 내보내는 등 실적보다는 예방에 주력하고 있어 나주시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 상인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만큼 주차 도우미를 고용해 사전에 불법 주차 단속사실을 알리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CCTV에 불법 주차차 단속이 적발되면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나주=최충희기자 srchoi@



올들어 3번째 개매기 체험 행사가 오는 30일 장흥군 대덕읍 신리 앞 바다에서 열린다. 개매기는 밀물때 조류를 따라 들어온 고기를 쓸물 때 잡는 전래의 고기잡이 방식이다.

“장흥서 개매기 체험하세요”

30일 대덕읍 신리 앞바다 머드 체험 등 부대행사도

오는 30일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장흥군 대덕읍 신리 앞바다 1천여ha 천연 갯벌 위에서 올해 마지막인 제 3차 개매기 체험 행사가 열린다.
‘개매기’는 조석간만의 차가 큰 바닷가 갯벌 위에 그물을 쳐 놓은 뒤 밀물 때 조류를 따라 들어온 물고기 때를 쓸물 때 간하도록 해 고기를 잡는 전래의 고기잡이 방식이다.
종물패의 흥겨운 농악과 함께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숭어, 농어, 돌 등을 맨손으로 직접 잡아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신이 잡은 고기를 그 자리에서 회로 맛볼 수 있는 재미도 선사할 계획이다.
또 갯벌체험, 머드체험, 봉사화

물들이기, 옛 제기차기 등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고 바다에서 수구치는 바다분수도 설치돼 어린이들이 동반한 가족단위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감동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맛볼 돌리개 체험 등을 비롯해 향토음식점, 체험음점, 회 따먹는 집, 민박 등도 운영된다.

신리 개매기 체험행사는 지난 7월 5일 제 1차를 시작으로 8월 2일 두번째 행사를 개최했으며 그동안 9천여명의 군민과 향우, 관광객들이 참가했다.
입장료는 성인 5천원, 10세 이하와 70세 이상은 3천원으로 참가자들은 여벌의 옷가지와 장화 등을 준비해야 하며 장화, 아이스박스 등은 현장에서 구입할 수 있다. 문의(061-860-0603) /장흥=김용기기자 kykim@

“가을의 정취 목화축제 오세요”

10월 20일 곡성 목화공원 파종부터 솟타기 ‘한눈에’

오는 10월 20·21일 이틀간 곡성군 경면 목화공원에서 ‘제 7회 결면 목화축제’가 열린다.
‘목화와 함께 그리운 옛 향수를 느끼보자’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목화축제는 1만5천㎡ 부지에 목화 꽃이 만개한 장관을 즐길 수 있다.
또 목화종자의 파종부터 재배·생산·솟타기의 과정을 한눈에 체

험할 수 있는 ‘목화체험’을 비롯해 15종의 토속농작물과 금강화 등 20여종의 야생화가 전시된다.
또 달구지 타기와 목화전시관 관람, 심청마당극, 난타공연, 불꽃놀이, 목화가오제 등 남녀노소 다양한 계층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곡성군은 전남 도내 유일의 목화 축제 개최로 청정 이미지도 제고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곡성=정필수기자 bungy@

보성군 을 추경예산 552억 확정

보성군 예산이 3천억원을 넘어섰다.
보성군에 따르면 지난 20일 552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이 편성돼 본 예산을 포함할 경우 3천15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추경은 예산 10% 절감계획에 따라 경성비 12억 원을 절감해 지역 경제살리기, 일자리창출 등에 재투자된다. 또 현안사업인 군청사 리모델링 및 별관 신축사업에 58억, 읍포관 광지 토지 및 건물 매입에 36억, 벌교

소도읍 육성사업에 21억 원이 편성됐다.
또 고유가 시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발자물과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스템 구축사업 등에 25억,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으로 17억 원이 지원된다.
정중태 보성군수는 “3천억 예산시대에 걸맞는 양질의 행정 서비스 제공과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지광권기자 light64@

목포옥남초, 옥암초등학교로 통폐합

목포 옥남초등학교가 옥암초등학교로 통·폐합된다.
지난 1976년 개교한 옥남초등학교는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정상적인 교

육과정 운영이 어려워 오는 9월1일부터 옥암초등학교에 통합된다.
옥남초등학교 부지는 전남도교육청과 협의해 교육시설 등으로 활용된다. /목포=이상희기자 sslee@

서해해경정, 해상방제기술 中에 전수

내달 2일 한·중 방제훈련 방제정·전문가 37명 파견

해양경찰이 중국에 해상방제기술을 전수한다.
서해방해해양경찰청(청장 이원일)은 다음달 2일 중국 칭다오에서 열리는 ‘제 2차 NOWPAP 한·중 합동 방제훈련’에 방제정을 포함한 방제 전문인력 37명이 참가한다.
이번 훈련은 여객선과 유조선이 충돌하면서 원유 1천t가량이 해상으로 유출된 사고를 가정해 실시된다.
25척의 선박 및 헬기 등이 동원될 이번 훈련에서는 지난해 12월 태안 해양오염사고 시 큰 역할을 했던 유조선기 단독 운용시스템 및 오일펜스 전장기술이 선보이게 된다.
한편 이번 훈련에 참가할 여수해경 450급 해양오



해양경찰청 방제 15호정(사진)이 지난 26일 여수항을 출발했다. 지난 97년 건조된 방제 15호정은 오일펜스 600m와 시간당 최대 140t의 기름 흡수가 가능한 유취수거기 등을 비롯해 유취리제 살포기 등 다양한 방제 기자재를 탑재하고 있으며, 14명의 전문인력이 승선하고 있다. /목포=이상희기자 sslee@ /여수=박영규기자 ykpark@